

서울교육청, 대학명 따라 A~E조 분반... '서열화 공인' 논란

내달 11일 2027학년도 수시 설명회
입시권서 통용되는 주요 대학군 반영
소재지·전공보다 입결·선호도 무게
수요조사 없이 일부 교사 의견 참고
연구원 "실제 지원전략 위한 구성"



서울시교육청 용산청사.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설명회에서 대학들을 사실상 입결과
선호도에 따라 등급화된 대학군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하면서, 공교육 진학지도 현
장에서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 아니
냐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 경쟁 완화와
'줄 세우기' 해소를 강조해 온 정근식 서
울시교육감의 교육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달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2027대입 수시의 이해와 대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교시 공통 강의와 2교시
맞춤형 분반 강의로 구성된다.

문제는 2교시 분반 구성이다. 교육연구
정보원이 '맞춤형 분반'이라고 소개한 2교
시 강의는 실제로 대학명을 기준으로 A~

E조로 나뉘었다. ▲A조(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B조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C조(건국대, 동국대, 성신여
대, 숙명여대, 홍익대) ▲D조(국민대, 광
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숭실대, 세종대) ▲E조
(단국대, 명지대, 상명대, 아주대, 인하대)
등이다.

입시 현장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서열
고·서성한', '중경외시이', '건동홍숙' 등

대학 서열식 분류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
이번 분반은 대학 소재지나 전공·전형 특
성보다 입시 현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대
학군' 인식을 기준으로 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서울 및 경
인권 주요 16개 대학이라고 통칭되는 대
학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분반표에는
서울 소재 대학 중 일부가 빠진 반면, 아
주대와 인하대 등 경인권 대학은 포함됐

다. 입시 현장에서 선호도와 입결을 기준
으로 묶이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설계한 셈이다.

같은 사업 안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진학
지도 동영상에 계열·전형 중심으로 구성된
점과도 대비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수시
진학지도 동영상을 의약학계열, 첨단학
과·계약학과, 간호·보건계열, 전공자유선
택제, 기회균형전형, 특성하고 특별전형
등 12종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온
라인 자료는 계열과 전형을 기준으로 세분
화하면서, 정작 오프라인 설명회는 대학명
과 입결 중심으로 편성한 셈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교육 시장에서
야 대학을 서열식으로 묶어 설명할 수 있
지만, 교육청 산하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설명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공교육 진학지도라는 이름으로 대학명을
입결 순서에 가깝게 묶어 제시하면, 교육
청이 대학 서열을 공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속한 진보 교
육감 진영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입시

경쟁 해소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교육감도 상
대평가와 대입이 결합한 '줄 세우기' 경쟁
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분반 방식이 서열화로 읽힐 수 있다는 점
은 고민했다"면서도 "이번 설명회는 이미
성적이 나온 고3 수험생과 학부모가 실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도록 돕기 위한 자
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시는 6장의 지
원 기회가 있고, 실제 수험생들은 내신 성
적에 따라 비슷한 대학을 함께 검토한다"
며 "한 학생이 함께 지원할 가능성이 큰
대학들을 묶어 비교 분석과 지원 전략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수요조사나 통계
자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교
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 100
여명 중 일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해명했
다. 또 "온라인 동영상은 교사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열별·전형별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안성시, 기후행동 특별 리워드 도입

경기주식회사와 플랫폼 운영 계약
건기·대중교통 등 탄소감축 보상

안성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
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확대 운
영한다.

안성시는 최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구축 및 운
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개발·
운영하는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으로, 도
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기록하면 사회적 가치를 인
정해 지역화폐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안성시는 기존 플랫
폼을 활용하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경기도가 제공하는 기본 리워드에 안성
시 자체 예산을 추가한 '안성시민 특별
리워드'를 도입해 참여 혜택을 강화할 계
획이다.

특별 리워드 적용 대상은 ▲건기 ▲대
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폐전자제품
재활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등이
다. 이에 따라 안성시민은 경기도 다른
시군 참여자보다 평균 35% 이상 높은 혜
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성시는 이와 함께 시민만 참여할 수
있는 '5대 특화 실천활동'도 새롭게 운영
한다. 주요 내용은 ▲녹색장터·자원순환
가게·순자마켓 이용 등 자원순환 실천 ▲
새벽시장·초록상점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소비 ▲절전·절수 인증 ▲서운산 야영장
다회용기 이용 ▲카페 다회용컵 이용 등
이다.

/안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서울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길 열렸다

서울시의회, 어르신 교통비 조례 가결
 시내·마을버스 요금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
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
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하
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우선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
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
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75명 중 찬성 69
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
례안은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
문1)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



서울시가 추진한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
승차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
과했다. /뉴스1

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가 예산 범위
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현재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버
스를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와 추진 방식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
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과 버스요금 지원을 포함한 대중교통 제
도 개편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정재 부단도 쟁점이다. 서울시의회 사
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될 경
우 매년 1000억원 이상,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57

6월 25일 (목)
음력 : 5월 11일

수도권 날씨
19 ~ 2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6/27, 동두천 16/27, 가평 15/26, 파주 16/27, 서울 19/28, 양평 17/28, 인천 19/28, 수원 19/27, 용인 19/27, 평택 19/28, 백령도 17/2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BK21 AI융합·지역연합 7개 연구단 선정

교육부, 중앙대 등 4곳에 42억 지원
 경북·충북대 등 3곳에 30억 투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4단계 두뇌
한국(BK)21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서
울시립대·인천대·중앙대·한양대 등 AI+
X 융합형 교육연구단 4곳, 경북대·충북
대·전남대 등 지역대학 연합형 교육연구
단 3곳을 선정했다. 고려대·성균관대·연
세대·중앙대·포항공대 등 10개 대학은 학
부 이공인재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4단계 B
K21 2026년 신규 시범사업인 인공지능 융

복합(AI+X 융합형) 교육연구단, 지역대
학 연합형 교육연구단, 이공 우수인재 성
장경로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AI+X 융합형 교육연구단은 인공지능
(AI)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분야를 결합한
대학원 교육·연구 체계를 지원하는 유형
이다. 전국 단위로 총 25개 교육연구단이
신청했으며, 평가 결과 ▲서울시립대 데
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AIX기반 환경보
건 지능형 디지털 트윈 교육연구단) ▲인
천대 인공지능 융복합 바이오 제조 융합
전공(바이오 공정 혁신 AX 융합 교육연
구단) ▲중앙대 인공지능 융합전공(첨단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AX-N
ative R&D 교육 사업단) ▲한양대 융합
기계공학과(AI+X 첨단제조 사회-기술
융합 교육연구단)가 선정됐다. 선정된 4
개 교육연구단에는 2027년 8월까지 총 42
억원이 지원된다. 지역대학 연합형 교육
연구단은 지역 거점국립대와 인근 대학이
함께 권역 단위 공동 교육·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3개 권역
에서 총 9개 교육연구단이 신청했으며, ▲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과(글로벌 에너
지신산업 전주기 지역혁신 인재양성 교육
연구단) ▲충북대 토목공학부(시민체감형
사회안전스마트시티 교육연구단) ▲전남
대 약학부(호남권 미래신약 개발 융합 교
육연구단)가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전에 美 무기 재고 부족 우려... 트럼프, 방
산업계와 회동 /사진 뉴스
▲"미·이란 협상 난항... 트럼프 임기 내 합의도
불확실"

▲유가 200달러 간다더니... 中, 원유 덜 사며 시
장 높였다
▲헝가리 총리 바뀌었지만...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
상 제동 '속도 조절'

▲"3천만불 부자들, 전 세계 55만명... '삼전닉
스' 서울도 6000명"
▲네덜란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첫 시행... 연
령·범위 등 두고 논란